

金 鎮 冠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作品研究論文

나뭇결을 살린 自然이미지의 心象 表現 研究

2006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東洋畫科

金 惠 敏

나뭇결을 살린 自然이미지의 心象 表現 研究

金 鎭 冠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11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東洋畫科

金 惠 敏

認 准 書

金惠敏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①

審査委員 _____ ①

審査委員 _____ ①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논문개요

본 연구자의 조형의식은 ‘자연에 대한 사랑과 조화’를 중요시하는 한국인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미의식에서는 순리를 그대로 살리는 아름다움이 우선시 되며, 자연과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룰 때 예술로써의 미적 가치는 극대화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심미안(審美眼)을 가지고 그것을 살린 창작물을 생활 속으로 조화롭게 끌어들이는 우리 조상들의 미의식은 본 작업에 기틀이 되었다.

아름다운 목리를 살려 만든 전통 목가구나 오래된 사찰의 단청과 벽화에서 볼 수 있는 세월이 흐르면서 부분적으로 형상이 없어지고 퇴색된 빛깔들이 나무의 색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느껴지는 정서는 본 연구자에게 편안한 미감으로 다가왔고, 그러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고재(古材)를 재료로 하여 개인적인 시각으로 그려낸 서정적인 공간으로서의 정원을 형상화시킨 것이다.

본 작품 연구에서는 나무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결을 살리면서 내면세계를 인식하는 수단인 자연의 이미지와 접목시켜서 작품의 구도와 배치에 적절히 활용해 보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본 작업은 작품 속에서 표현된 자연이미지를 단순히 묘사를 한 다기 보다는 조형적인 형태와 의미를 자연으로 환원(還元)해가는 자연 친화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나무를 매개체로 하여 손으로 다듬고, 파고, 그 위에 채색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나뭇결사이에 본 연구자의 감성을 주입시켜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편안한 느낌을 유도하여 작품으로서 자연과 조화되고자 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본론	3
1. 자연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미	3
(1) 한국인의 자연관	3
(2) 한국미의 특성	5
2. 자연이미지로 나타낸 내면의 심상 표현	10
3. 나무의 자연성을 이용한 회화의 조형방법	14
(1) 회화재료로써 나무의 기원	14
(2) 나무재료 선택의 동기와 종류	15
(3) 나무의 구조적인 특징과 표현	17
(4) 작품의 제작 과정	20
III. 작품 분석	22
IV. 결론	32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心園1 (Secret garden1), 古材에 혼합기법, 38×38cm, 2004

【작품 2】 心園2 (Secret garden2), 古材에 혼합기법, 51×180cm, 2004

【작품 3】 心園3 (Secret garden3), 古材에 혼합기법, 225×110cm, 2004

【작품 4】 心園4 (Secret garden4), 古材에 혼합기법, 170×79cm, 2004

【작품 5】 心園5 (Secret garden5), 古材에 혼합기법, 151×191cm, 2004

【작품 6】 心園6 (Secret garden6), 古材에 혼합기법, 351×191cm, 2004

【작품 7】 心園7 (Secret garden7), 古材에 혼합기법, 27×182cm, 2004

【작품 8】 心園8 (Secret garden8), 古材에 혼합기법, 27×103cm, 2004

【작품 9】 心園9 (Secret garden9), 古材에 혼합기법, 27×106cm, 2004

【작품10】 心園10 (Secret garden10), 古材에 혼합기법, 60×119cm, 2004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자연은 인간의 미의식이나 예술 활동의 원천이 되어 왔고, 인간은 끊임없이 느끼고 탐구하면서 체험한 감정들을 예술이라는 형식으로 표출해 왔다.

또한 예술은 인간의 가치관, 내면세계를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표현해냄으로써 그것을 보는 감상자와의 교감(交感)을 통해 그 시대의 문화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자의 미의식과 예술 활동 역시 한국의 자연관에 근거(根底)한 한국의 미에서 영향을 받았고 그러한 자연스러움의 미학을 조형 의식의 바탕으로 하여 내면의 세계를 작품화함으로서 감상자와 교감하고자 하였다.

옛날 한옥 골재의 한 부분이나 세월이 묻어나는 살림살이의 한 조각에서 정감 어린 향수를 느낀 것이 계기가 되어, 오래된 나무가 주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정서를 자연이미지들과 조화시켜서 작품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연이미지들은 단순히 대상을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관에 의한 지적, 정서적인 경험과 기억들을 상징하며 본 연구자의 구체적인 감성을 담은 서정적인 정원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본 작품 연구를 통해 나뭇결을 매개체로 하여 자연미를 살리면서 융화될 수 있는 회화의 조형방법을 새롭게 모색해 보고자함을 목적으로 하며,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의 정서로 감상자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작품에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조화될 수 있는 화면의 요소로써 나무판의 외적인 특징을 적절한 구도와 배치를 통하여 나무의 결을 드러내고 활용하면서 자연이미지들을 표현하여 정원의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자연이미지는 구체적인 심상을 담은 자아의 표출(表出)이며, 작품 속에서 다양한 자아의 상징들이 머물고 있는 정원의 단편적인 모습들은 본인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삶의 이야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자에게 있어 작업은 자아의 표출이자 삶의 의미가 되며 나무라는 재료의 선택이나 작품속의 이야기가 되는 자연이미지들은 단순한 표현에서 그치는 아니라 그 의미와 형태를 자연으로 환원해 가려는 자연 친화적인 성격을 지닌다.

본론의 첫 번째 장에서는 전통적인 자연관과 미의식을 살펴봄으로써 예술에 있어서 자연이 갖는 의미와 우리나라의 자연이 미의식에 끼친 영향을 통하여 한국미의 특성을 알아보고 본 작업의 기반이 되는 자연미, 재료의 생명미, 간결미를 추출해가는 과정을 통하여 본인의 조형의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찾아보았다.

두 번째 장에서는 본 연구자의 내면세계를 인식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써 다양한 상징적인 자연이미지를 통한 심상 표현의 내용과 방법을 서술하였다. 세 번째 장에서는 회화재료로써 나무의 기원을 알아보고 재료선택의 동기와 작품에 쓰인 나무의 종류와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서 나무판의 외적인 특징들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예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자연이미지와 접목시켜 조형화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나뭇결의 자연성을 작품의 요소로써 활용하여 살리는 것을 고려한 조형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작품 분석에서는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에 적용된 표현 내용을 설명하고 분석해 나가면서 작품의 의미와 제작 의도를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Ⅱ . 본 론

1. 자연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미

1) 한국인의 자연관

자연(自然)이란 사전적 의미로 인간의 손에 의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나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산, 하늘, 땅, 바다, 안개, 나무, 풀 등의 우주 만물 전체의 존재를 포괄(包括)하는 것이며,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외부로부터 영향이나 자극이 없는 그 자체로 존재하고 생성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간도 이러한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으며, 자연을 통해 자아의 존재와 생명력을 확인하고 그 질서 속에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생명체로서 근본적으로 자연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다.¹⁾

그리고 예술(藝術)은 어떤 일정한 재료와 양식, 기교 등에 의하여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 또는 산물을 의미 하며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인간은 자연을 끊임없이 느끼고 탐구하면서 체험한 감정들을 예술이라는 형식으로 표출해 왔다. 이렇듯 자연은 인간의 미의식이나 예술 활동의 원천이 되어 왔으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인간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창조의 원동력이 된다. 또한 자연은 자체로도 완전하며 무한한 신비를 지닌 외관(外觀)의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에는 존재의 본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攝理)안에서 존재하는 인간은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에 대한 욕구를

1) 백기수, 「미학」 (서울:서울대 출판사), 1978, p.9

자극 받으며 미를 추구해 왔다.

동양 자연관의 중심사상인 노장사상(老莊思想)²⁾에 의하면 천지만물(天地萬物)의 현상이나 인간까지도 모두가 자연 속에 포함되는 것이요, 분리 될 수 없는 것³⁾이라 하여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아 그 속에 순응하고 순환하는 섭리를 깨닫고자 하였으며, 형태와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력을 관찰하는 미적인 감동에 근원을 두어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정복이 아닌 자연과의 완전한 조화에서 찾으려 하였다. 또한 도가에서의 ‘사람은 땅의 순리를 따르고 땅은 하늘의 순리를 따르며 하늘은 도의 순리를 따르고 도는 자연의 순리를 따른다.’는 뜻을 의미하는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⁴⁾의 가르침을 한국인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였으며 이는 자연과 인간이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동양 자연관의 배경과 우리나라의 지형적, 기후적인 특성이 한국의 자연관과 미의식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 민족의 문화가 형성됨에 있어서 그 민족이 살고 있는 자연환경은 일차적인 기반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계절이 아름답게 변화하는 전형적인 온대 기후와 완만한 산세의 곡선을 따라 물줄기가 흐르는 비옥(肥沃)한 땅이 주는 혜택 속에서 농경생활을 하며 살아온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풍광(風光)속에 조화되었다. 자연의 한 끝자락이 집의 틀이 되어 자연 속으로 번져나가면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있어 자연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터전인 동시에 자양(滋養)의 공급처가 된다. 이러한 환경의 영

2) 노자와 장자의 사상. 무위자연(無爲自然)을 도덕의 표준으로 하고, 허무를 우주의 근원으로 삼는다. 예(禮)를 통해 세상을 교화하려 한 유가(儒家)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었다.

3) 이은상, 「자연론」, (서울:예술원 논문집-제5집), 1996, p75

4) 중국의 사사가 노자(老子)가 지은 것으로 전하는 저서 <도덕경> 제 25장 구절.

향으로 한국인은 자연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름답고 축복받은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행복감, 만족감, 친밀감의 성격을 지니게 된 한국인은 자연에 대한 사랑과 조화를 기초(基調)로 한 삶의 자세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자연관은 도교, 불교, 유교의 전통적 사상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 오면서 정신세계를 이루는 토대(土臺)가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과의 친화관계에서 형성된 한국의 예술은 자연이 인간과 독립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여겨왔다. 흔히 한국미의 특징을 ‘무기교의 기교’ 또는 ‘소박미’라고 할 때 그것은 인위적인 꾸밈이 없는 자연과의 합일(合一)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한국미의 특성

앞에서 논한바와 같이 자연은 우리 민족의 정서로서 한국미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미를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한국 미술의 기본적인 특성은 자연주의와 철저한 자기의 배제에서 요란하지 않고 조용하고 적막하다. 색과 무늬 면적을 줄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재료의 특성을 살피서 자연과 부딪치지 않는 조화를 만들어 낸다.”⁵⁾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의 원리를 따르는 색채나 수수한 형태에서 나타나며, 꾸밈없는 순수함속에 담겨있는 내면의 깊이를 중요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화를 보면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은 표현이나, 조금 어수룩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꼭 있을 만큼만 표현된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인해 자연스러움을 느끼게 되

5) 김원룡, 「한국미의 연구」, (서울:열화당), 1978, p.44

는데, 이것은 민화를 그린 장인들이 심미(審美)의식과 조형 감각이 모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민족성에 바탕을 둔 삶의 성격에서 온 것으로 꾸밈없는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짜임새 있기보다는 심심하거나 어수룩함을, 충만 보다는 공허가, 세련보다는 바탕이, 완성보다는 미완성이, 인공보다는 자연이 강조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처럼 우리의 전통회화 속에서 왠지 모를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것은 자연을 다듬어 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고 관조(觀照)하려는 의식에 기인(起因)한다. 이러한 순박한 자연주의는 한국미의 가장 깊은 면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적 심상은 이와 같은 전통적 자연관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자연을 단순히 물체 감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힘을 가진 것으로 숭배하거나 자연으로부터 모든 사물을 다스리는 정신적 힘을 끌어내며 삶과 생각의 근원을 찾는 데서 비롯된다. 이렇게 한국인들은 자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그들의 목적을 위해 적합한 곳을 찾으며 주변의 다른 장소나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 조화롭게 사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형에 따라 구부러진 길에 순응하는 것이나, 자연을 살려 표현된 미적 대상물에서 나타나며, 이것은 인위적이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한국인들이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하나의 형식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스러움의 미의식은 막연한 자연 자체에 대한 감각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자연에 대한 특별한 현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자의 조형의식 또한 이러한 한국적인 미의 특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자연미, 나뭇결을 이용한 재료의 생명미, 소박한 간결미로 정의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그 첫 번째로 앞에서 논하여진 한국적인 미의 특성들은 전반적으로 미의식 저변(底邊)에 자연미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고 자연 그대로의 순리를 따르는 미는

우선시 되어지며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미적 가치는 극대화 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써 우리의 전통 건축물들은 자연을 훼손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산세(山勢)나 지형의 흐름에 순응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것을 우선시하여 그 속에 놓여지는 형태로 지어졌다.

또한 본 작품의 주제가 되는 정원에서도 이러한 자연미를 추구하는 한국미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서양에서의 정원(Garden)은 둘러싼다는 뜻의 라틴어 ‘gar’와 아름답게 꾸민다는 뜻의 ‘eden’ 또는 ‘oden’에서 나왔다. 이것은 사람의 창조에 주안점(主眼點)을 두는 것이다.

일본의 정원도 서양 정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정원을 자연의 축소판으로 보았고, 한정된 공간 안에 자연의 모든 것을 오밀조밀하게 배치하여 최대한 재현하려 하였고, 계절과 관계없이 늘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상록수를 많이 썼다.

반면 한국은 정원을 자연의 연장으로 보았기 때문에 정원을 조성할 때에도 자연경관을 주(主)로 삼고 인공경관을 종(從)으로 삼아 그 속에서 바라보는 계절 따라 변해가는 풍경 그대로를 정원으로 여겨서 자연에 순응하고 조화하고자 하였고 가급적이면 인간의 손길을 배제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려 하였다.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도 고재(古材)가 주는 정감 있고 편안한 정서와 그 속의 웅이, 나무의 색, 나뭇결의 자연미를 살려낸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이번 작업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두 번째로 인위적인 것을 자제하고 재료가 본래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중시했던 미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상물로는 우리나라의 전통 목가구를 들 수 있다. 우리 선인들은 섬세하고 교묘한 조각 장식이나 각양각색(各樣各色)의 칠(漆)과 화려하게 장식된 목가구보다는 아름다운 목리(木理)⁶⁾위에 표현되거나 그

리 아름답지 않은 나뭇결로 제작된 가구라도 그 위에 지나치게 장식하고 칠을 하면 목리를 가리고 없애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살린 가구를 사랑하였다. 목리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므로 자연에 있는 것과 같고 몇 백 년 넘은 재목에서 스며 나오는 은은한 향은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준다. 물론 우리 목가구에도 칠을 한 것이 있지만 주칠(朱漆)을 하되 얇게 하여 투명하고 칠이 오래될수록 분홍색으로 피어나고 더 투명해져서 큰 목리는 물론 자잘한 나뭇결까지도 속속들이 비쳐 보이게 하여 나무가 지닌 아름다운 자연미를 드러냈는데 이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자연에 가까운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소박하면서도 깊이 있는 우리 민족의 성격이 잘 반영되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작품에서도 위와 같은 목리와 옹이, 나무의 색, 나뭇결 등이 주는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수집된 나무판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조형적인 구성을 달리 하였다. 또한 채색 기법에 있어서도 오래된 나무가 주는 편안한 느낌과 조화될 수 있도록 은은한 색감을 사용하여 나뭇결이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간결미는 인공적인 장식을 줄이고 최대한 자연에 순응하고자 하는 한국적인 미니멀리즘(minimalism)⁷⁾ 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미니멀리즘은 분석적이지도 개념적이지도 않으며 물질 자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 주체가 되어 자연과의 동화에 집착한다. 이러한 미니멀리즘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단순성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공간이나 재료와 형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절제(節制)의 미학”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⁸⁾

6) 나무를 자른 목재(木材)의 표면을 세로로 자른 단면에서의 나이테, 도관(導管), 섬유(纖維) 등의 조직의 배열에 의해 나타나는 모습

7) 되도록 소수의 단순한 요소로 최대 효과를 이루려는 사고방식.

본 연구의 <작품 7>에서도 나무관 속의 옹이를 드러내고 부엉이에 대한 자세한 표현을 생략하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움을 주었고, 형상이 분명하지 않은 솔가지의 흔적만으로도 소나무임을 유추할 수 있도록 형태를 자연스레 지워가면서 간결하고 표현하였다. 또한 계획되어진 여백(餘白)의 확보로 인해 절제(節制)의 미가 느껴질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절제의 미학이 갖는 미니멀리즘적인 성격은 전통 회화에서의 여백과 선, 건축에서 보이는 간결미, 도자기의 형태와 색, 담백한 색채관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한국의 미적 대상물에서 느껴지는 요란하지 않고 부드러운 조용함이 가져다주는 고요함은 내면의 깊이를 더욱 심오하게 한다.

이렇듯 한국의 미에서 나타나는 조형의식 속에는 넉넉한 지혜와 숨결이 담겨져 있으며 오랜 세월동안 삭힘과 숙성의 과정을 거쳐 그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교(奇巧)에는 자연과 융합하려는 겸허함과 순수함이 배어 있고 정감과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위와 같은 한국미의 특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의 작품에서는 자연성을 살리면서 손길은 절제하며 조심스럽고 겸허(謙虛)한 표현방법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살려낸 한국의 미를 연구해 보았다.

8) 이성실, “한국의 미의식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을 바탕으로 한 직물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2005), p.7

2. 자연이미지로 나타낸 내면의 심상 표현

심상(心像)이란 마음에 떠오르는 감각적 성질을 가진 상을 의미하며 우리 마음 속에는 수많은 심상 들이 있지만 각각 개념이 다르고 한 대상에서 나오는 심상이 누구에게나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심상은 의식, 진실, 개념, 이미지등을 포함하며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심상은 비언어적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시심상(示心像)은 사고가 포착하지 못하는 중요한 세부를 나타낼 수 있는 공간적인 구상을 가능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면서 사회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정신 과정이므로 독창적인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⁹⁾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가의 심상은 창조활동을 통해 표출되며 예술 작품은 작가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심상언어를 형상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가는 대상의 외적 분석보다는 대상으로부터 나온 자신의 심상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 심상들 속에는 의식의 흐름이 있고, 이 흐름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움직인다. 따라서 완성된 작품 속에서 느껴지는 조형미와 작가의 의식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와 감상자와 교감(交感)될 때 그 작품은 예술로써의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작품에 나타난 표현은 예술가의 잠재의식의 개입이 형상화되는 과정을 통해 대상에 미적 형태를 부여한 것으로, 이미지의 은유나 상징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여기서 상징이란 용어는 관습적이고 분명한 의미 이외에도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다. 즉 우리에게 숨겨져서 알지 못하는 무언가의 뜻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현상이 직접 나타내는 분명한 뜻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암시한다면 그것은 상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술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작가는 자

9) R 아튼하임, 김정오 역, 「사고적 사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2, p.478

신이 체험하고 느끼며 생각한 것을 표현해 낸 이미지에 상징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작품은 보이는 그대로의 자연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양한 자연 이미지들의 형상을 빌어서 개인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자연으로 나타내고자 한 것이며, 작품 속의 자연 이미지들은 본 연구자 내면의 심상을 담은 다양한 상징으로서 표현되었다.

예를 들어 <작품 ⑤>에서 물고기는 육지의 꽃밭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물고기는 보이는 그대로를 그려낸 것이 아니라 호기심이 많고 자유를 갈망하는 감정을 이입시킨 것으로서 본 연구자 내면의 심상에 사는 물고기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은 대상에 대한 심상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위의 관점에서 볼 때 내면의 심상들은 작업을 통하여 여러 가지 자연의 이미지를 불러들였고, 그것들은 각기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 되어 자아를 표현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자아를 표현해가는 작업의 과정은 주관적인 감정과 감성의 표현을 바탕으로 한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삶의 과정중의 일부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상징은 은유적인 형식으로 개인적인 체험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동일한 상징이라 할지라도 작가가 뜻하는 것과 감상자가 받아들이는 뜻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에 있어서 상징의 형식에는 다의성(多義性)과 가변성(可變性)이 포함되어져 있게 되며 개인이나 국가, 시대,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자의 미의식과 예술 활동은 자연에서 영향을 받았고, 그것이 작품의 모티브(motive)가 되어 체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다양한 내면의 감정들을 새, 꽃, 나무, 나비, 대나무 숲, 물고기 등 주관적인 상징의 의미를 부여한 자연이미지들을 작품 속으로 불러들였는데, 그것은 이러한 자연이미지들이 같이 공생(共生)하

는 정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본 작품 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정원은 울타리로 가두어 가지런히 잔디를 심고 화단(花壇)을 만들어 꽃을 보기 좋게 가꾸어 놓는 그러한 인공적인 모습이 아니라 울타리도 담도 없이 문을 열면 한 눈에 자연이 펼쳐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산수정원(山水庭園)¹⁰⁾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대나무 숲이 펼쳐지고 소나무 가지 위에 앉은 부엉이가 정겹게 느껴지며, 처마 밑에 이름모를 꽃과 풀들이 자라나고 맑은 물이 흘러 물고기들이 뛰어 노는, 꾸밈없고 소박하며 정감 있는 한국 자연의 모습이다. 이러한 정원을 바라보는 본 연구자의 시각(視覺)은 자연과의 합일을 근본으로 하는 한국인의 미의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작품 제작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작품의 재료인 나무가 가진 결을 살린 자연 이미지들의 표출이다. 먼저 수집된 나무판들을 관찰하여 선택한 소재와 조화될 수 있는 자연 이미지들을 상상하고 유추하여 나무위로 끌어 들이고 다시 나무판들을 어울리게 조합(調合)하여 작품 속의 이야기를 만들게 된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연 이미지들은 작품이 만들어 지는 시기의 내면 상태나 과거의 직접, 간접적인 경험에 의한 기억, 또는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상상, 예측에 따라 이미지의 형상을 달리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이미지라 할지라도 심상의 내용이나 색채와 화면의 구성, 표현 기법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회화에서의 색채는 작품에 생기를 불어 넣는 중요한 요소로써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자극하는 언어의 역할을 상징하는데, 본 작품 안에서의 색채는 감지(感

10) 산과 물이 흐르는 사이에 놓여져 먼 거리에 있거나 가까이에 있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정원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정자가 대부분 산수 간에 위치한 정원을 말하는데 임천정원(臨川庭園)이라고도 한다.

知)된 대상에 의도하고자 하는 감정을 불어넣어줌으로써 정신을 더욱 자유로운 상상의 공간으로 이끌어주며, 심상화(心想化)시키는 과정을 더욱 용이(容易)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오래된 나무와 조화될 수 있도록, 편안하고도 깊이 감이 느껴지는 고색(古色)이 주는 어느 정도의 퇴색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하여 작품 전반적으로 색감에 통일감을 주고 다시 닦아내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본 연구자의 작품에서도 제작된 시기에 따라 다른 내면의 감정이 이입되었다. 그 예로 <작품⑥>를 제작할 때 슬프고 외롭고 답답한 내면의 감정을 느꼈었는데 그 시기의 심상이 작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심상을 표현함에 있어서, 어둡고 비에 젖은 숲이 상징하는 비애감을 어두운 색감으로써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답답하고 외로운 내면의 감정을 대나무의 형태와 숲의 구성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에게 있어 자연이미지들은 이러한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심상을 지닌 ‘자아(自我)’의 형상이며, 그러한 자연 이미지가 공존하는 정원의 의미는 ‘삶의 이야기’를 상징한다.

이와 같은 내면의 심상을 담고 본인의 조형의지로 표현시켜 다양한 상징의 의미를 부여한 자연이미지들에게서 구체적인 감정을 지닌 자아의 모습을 찾으려 했고, 그러한 은유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내 마음에 핀 정원’을 작품의 주제로 하여 본 연구자의 내면 심상을 담은 삶의 모습을 자연 이미지로써 형상화 하고자 하였다.

3. 나무의 자연성을 이용한 회화의 조형방법

1) 회화 재료로써 나무의 기원

현대 회화는 재료의 선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종이나 캔버스를 포함하여 작가의 조형 의지에 부합(符合)되는 모든 사물 또는 자연물, 현상이나 공간, 매체, 심지어는 무형상의 유추(類推)까지도 폭넓게 확대해 가고 있으며 실로 그 범위는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본 연구자의 작품 재료로써 사용된 나무를 바탕재로 한 회화 양식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서양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수많은 명작들이 증언하듯이 15세기 이탈리아의 예술 운동 당시부터 회화 작업을 하기 위한 화판의 역할로써 캔버스(canvas)를 발명하기 전까지 나무가 지지물의 재료가 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에 발굴된 경주 천마총(155호분)에서 나온 천마도(天馬圖)¹¹⁾가 현전(現傳)하는 나무위에 그려진 가장 오래된 그림인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나무를 바탕재로 한 회화 양식의 대표적인 것으로 사찰 건축물의 단청(丹青)을 들 수 있는데, 단청이란 목조건축의 의장(意匠)기법으로서 사찰이나 궁궐 등에 건물용도에 맞는 장엄성과 위엄을 보이기 위해 행하여지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벽, 기둥, 보(樑) 등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이나 무늬를 그려 놓은 것 또는 그 일을 가리키고 있으나, 넓은 의미로서는 조각형상이나 공예품 등에 채화(彩畵)하는 것과 서(書), 회(繪), 화(畵)의 개념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11) 말안장에 늘어뜨려 흙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마구(馬具)의 일종, 우리 선조들은 그림을 그릴 때 주로 비단, 천 또는 가죽을 사용하였지만 천마도는 자작나무 수피(樹皮)위에 그려진 것이 특징이며 이 자작나무 수피는 백화수피라고 하여 색상이 하얗고 매끄러우며 물이 잘 스며들지 않고 잘 썩지 않아 예로부터 다양하게 쓰였다.

이러한 단청은 「삼국사기 제 48권 술거조」¹²⁾에 의한 기록에 의하면 신라시대에는 이미 단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전래되는 최고(最古)의 단청 건물은 경상북도 영주의 부석사이다. 이처럼 목조 건물로 지어진 사찰의 불화나 단청은 세월이 지나도 그 자취가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른 나무를 바탕 재료로 사용한 회화 양식이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부분적으로 형상이 없어지고 퇴색된 빛깔들이 나무의 색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느껴지는 정서는 후세 사람들에게 왠지 모를 편안한 미감으로 다가온다.

2) 나무재료의 선택 동기와 종류

자연을 상징하는 일반적인 이미지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나무이다. 나무는 우주의 생명을 상징하며 그것은 생성과 조화, 성장의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끊임없이 지속되는 생명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러한 나무는 그 종류에 따라 수많은 형태를 가지며 일조(日照), 기후, 토양 등의 영향을 받아 성장과정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지게 되고 무수한 조화의 아름다움을 보인다. 인간은 이런 나무를 보면서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편안함, 안정감, 친근감,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자연과 동화됨을 느끼는데 특히 자연에 목마른 각박한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슴을 가장 가까이에서 축축하게 적셔주는 축복이다. 이렇듯 자연의 순환 법칙에 따라 변화하는 나무는 삶의 방법을 체득하게 해주고 모진 역경과

12) 임영주, 「단청」, (서울:대원사), 1996 p.19 「술거를 “착화자(着畵者)”라 일컬었으며 그가 그린 황룡사 벽면의 노송 그림을 “화노송(畵老松)”이라 했는데, 마치 살아서 청정한 것 같은 술거의 소나무 그림에는 나뭇가지에 새들이 날아들곤 했는데 그 뒤 색이 바래 어두워지자 절의 중이 새롭게 단청을 보수하니 그 다음부터는 새들이 날아들지 않았다.」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와 끈기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자연의 질서 속에서 생성되고 성장하는 조화로운 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지혜, 풍요, 인내, 희생, 조화, 정신적 에너지, 역사와 같은 내적인 이미지들은 인간의 삶과 많이 닮아있고, 나무마다 제각기 생김새가 다른 나이테, 목리, 옹이, 나무의 색, 나뭇결과 같은 외적인 이미지들은 자연 그 자체로도 아름답기 때문에 예술적 형태로 승화시키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며 또한 친숙한 감동을 부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에게 무한한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나무가 주는 감동이 원동력이 되어 “내 마음의 정원(庭園)”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연을 개인적인 시각으로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본 작품에서는 세월을 상징하는 나이테가 가진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무의 종류 중에서도 나이테가 분명히 드러나고 비교적 구하기 쉬운 소나무를 선택하였다. 오늘날까지 우리 가슴속에서 일관(一貫)된 정서로, 또는 생활 전통의 문화요소로 이어져 내려오는 소나무는 예로부터 내강(耐強), 내구(耐久), 내곡성(耐曲性)의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목조 건축물의 골조(骨組)로 많이 사용하였다.

작품의 재료로 쓰인 소나무의 종류는 내륙 지방에서 주로 자라기에 붙여진 향명(鄉名)인 육송(陸松)과 춘양목¹³⁾인데, 대부분의 작업 재료는 한옥의 대청마루나 외벽에서 채집된 육송이며, 오래된 한옥의 대문위에 작업한 <작품3>은 춘양목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이번 작품의 재료로 사용된 소나무는 오래된 한옥에서 채집(採集)한 고재(古材)만을 사용하였다. 고재는 수십 년, 수백 년을 거쳐 비바람을 맞으며 햇빛을 받고 끊임없이 살아 숨쉬어온 우리 나무이기 때문에 이미 변형을 거친 만큼 신

13)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과 소천면 일대의 높은 산지대에서 자라는 소나무. 또는 그 재목. 속이 붉고 단단하며 껍질이 얇아 건축재, 가구재 따위로 많이 쓴다.

재(新材)에 비해서 틀어짐이 거의 없고 수명이 긴 것이 장점이다. 그리고 오래된 한옥 골재의 한 부분에서 또는 손때 묻은 살림살이에서 수집된 우리 선인들의 숨결과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는 오래된 나무의 질감은 신재(新材)와는 다르게 그 자체만으로도 정감 있고 아름답다고 생각되었고, 이러한 고재가 주는 편안함과 아름다움의 정서를 작품 속에서 살려보고자 했던 것이 본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3) 나무의 구조적인 특징과 표현

예술가는 자연의 관찰을 통하여 형태에 대한 인식 향상과 함께 신선함을 간직할 수 있고, 원리 원칙에만 의존하여 작업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진정한 영감을 끌어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작업의 재료가 되는 나무의 특징을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자연성을 관찰하며 회화와 접목(接木)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① 목리

나무재료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목리를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목재의 얼굴 표정이 무궁무진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 유형을 보면 반듯한 것, 경사진 것, 물결모양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목리의 아름다움은 앞서 얘기한 바 있는 우리나라의 목가구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목가구를 들여 놓은 후 매일 호도, 잣, 동백 등의 기름을 묻힌 천으로 닦고 문질러 나무속에 스며있는 자연의 맛까지 찾아내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락(苦樂)을 같이 하며 목리의 깊은 맛을 음미하였다. 본 작품을 제작하면서 수집한 나무판의 외적인 특징들 중에서 연구자는 목리를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으므로 이것이 화

면 구성의 요소로써 활용될 수 있게 전체적인 구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였고, 채색에 있어서도 목리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은한 색감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4>를 제작 하면서 나무판을 관찰하니 다른 나무판보다 입체적이며 무늬가 큰 목리가 마치 물결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판을 다시 조합하고 작품 속에서 목리를 물결로 이용하여 오리들이 떠있는 강가의 서정적인 풍경으로 담아 보았는데, 이러한 목리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사포질을 강하게 하여 입체감을 주었다.

② 옹이

나무는 성장(生長)하면서 줄기의 측면 부분에 존재하는 싹이 가지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 가지는 길이 성장하는 조직과는 다르게 측면으로 발달한 조직으로, 원목을 베어서 목재로 전환될 때 옹이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옹이 주위에서는 목리의 변이(變移)가 심하여 일반적인 가구나 건축재로 쓰일 때는 결점으로 지적되지만, 본 작업 과정에서는 나무판 위에 나타나는 나무의 외관적인 특징들 중에 눈길을 끄는 재미있는 자연 현상이었고, 그 옹이들은 작품 속에서 정원에 사는 오리, 부엉이, 새, 물고기들의 눈, 꽃과 대나무의 잎사귀로 다시 태어났다. 옹이가 가진 자연적인 특징을 활용하여 <작품 7>에서는 화면의 가장 재미있는 요소로 적용시켜 마치 우리 조상들의 민화에서 느낄 수 있는 익살과 해학미(諧謔美)¹⁴⁾로서 드러내어 보고자 하였다.

③ 나무의 색

나무를 가로 단면에서 잘랐을 때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피(樹皮)에 가까운 바깥쪽 부분과 나무의 중심이 되는 부분에 가까운 안쪽 부분의 색이 다르다는 것

14)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아름다움.

이다. 이렇게 나무 바깥쪽의 색이 옅은 부분이 변재(邊材)¹⁵⁾이고, 안쪽의 색이 짙은 부분이 심재(心材)¹⁶⁾이다.

작업과정에서도 나무의 가로 단면을 관찰 하면 안쪽에서 바깥 부분으로 갈수록 색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변화하는 나무 색에서 천연적인 색의 아름다운 조화를 느낄 수 있었으며, 나무 단면의 바깥쪽(변재)에서 안쪽(심재)으로 갈수록 성질이 점점 메마르고 단단해 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비교적 얇은 두께로 잘라진 나무판들은 수분을 흡수했다가 건조되는 과정에서 일부분은 안쪽을 중심으로 휘거나 균열을 가져오기도 하는 작업 과정의 어려움이 있었고, 나무판을 조각도로 파고 조각하여 부분적인 표현을 할 때 메마르고 단단한 심재 부분에서는 조각기법을 하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나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화면 구성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④ 나이테

우리나라는 사계절에 따라 나무가 자라는 정도가 다르므로, 시기에 따라서 성질이 다른 목재의 층이 생기는데 가로 단면에서는 이 층이 중심으로부터 동심원(同心圓)상으로 나타나므로 이것을 나이테라고 부른다.

이렇듯 나무는 온화한 해에는 구김살 없이 나이테를 뻗치고 차가운 기후의 해에는 단단한 테를 그려 춘하추동의 미묘한 흔적을 남기면서 자라난다. 이러한 나이테에서 보이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수많은 면과, 변화가 풍부한 미묘한 무늬, 폭의 이동과 색의 차이에 오랜 세월의 풍설(風雪)을 이겨낸 나무의 삶이 나이테로 새겨져서 보는 이로 하여금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나

15) 통나무의 겉 부분. 빛은 희고 몸은 무르며 질이 거칠어, 그릇이나 건축재로는 적당하지 않다.

16) 나무줄기의 중심부에 있는 단단한 부분. 또는 그것으로 된 재목. 보통 붉은색, 누런색, 흑갈색이다.

이테도 위에서 언급한 목리와 마찬가지로 화면 구성의 요소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구도 계획에 있어서 적절한 배치를 고려하였고, 채색에 있어서도 나이트가 드러날 수 있게 은은한 색감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3) 작품의 제작과정

본 작품의 제작 과정은 여기저기서 수집된 고재를 모으고 그것을 다듬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오래된 나무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이물질 제거한 후 그라인더(Grinder)와 사포(砂布)를 사용하여 거친 목재의 표면을 고르게 하였고 그 위에 아교반수(阿膠礬水)를 하였는데 반복하여 작업되어진 것이 재질을 보호하고, 아교의 끈기를 더해 주어 채색의 박락(剝落)을 방지하므로 물에 여러 번에 나눠서 바탕 면에 아교포수(阿膠泡水)하였다.

나무는 수분이 빠지면 수축하고, 반대로 수분을 흡수하면 팽창하게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수축에 따르는 결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특히 나무를 세로 단면으로 얇게 자른 나무판들은 수분을 흡수했다가 건조되는 과정에서 일부분은 안쪽을 중심으로 휘거나 균열을 가져 올 수 있는 점에 주의하여 통풍이 잘되는 곳에 놓고 대기의 온도와 습도로 말리는 천연건조를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탕 면에 각 나무판들이 가진 다양한 나뭇결, 옹이, 나무의 색, 나이트 등의 특징을 이용하여 소재를 구성하였고, 그 안에서 상상력을 동원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얻어 작품 안에서 본 연구자의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는 나무판들로 분리해 내고 다시 조합하여 화면 구성을 하였는데, 여기서 나무가 본래 가진 고유한 결이 가려지지 않도록 색감을 은은하게 표현 하였고, 여유 있는 구도를 통하여 나무가 주는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을 살리고자 하였다. 또한 수집

된 나무판들이 한옥의 대청마루나 외벽(外壁)에서 채집된 고재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로 폭이 좁고 세로로 긴 형태를 가졌는데, 이를 구성함에 있어서 작품에 담는 이야기에 따라 그 형태에 리듬(rhythm)을 주고 생동감을 부여함으로써 조형방법에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화면 구성 후에는 조각도와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파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조각을 해서 부분적으로 입체적인 재질감을 나타내었다가 다시 사포를 이용하여 형상을 자연스럽게 없애기도 하는 등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시도해 보았고, 채색에 있어서도 아교 물과 분채(粉彩)를 섞어서 색을 올리고 닦아내는 작업을 반복하여 나무의 조각된 부분에 색이 스며들어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표현 하고자 하였다.

작업의 완성 단계로 나무판위에 마감재 역할로써 식물성 오일을 발라서 나뭇결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채색의 박락(剝落)을 방지하였다.

Ⅲ . 작 품 분 석



【작품 1】 心園 1 (Secret garden 1)

【작품 1】 心園 1 (Secret garden 1)

크 기 : 38×38cm

재 료 : 古材에 수간채색, 혼합기법

제작연도 : 2004

이 작품의 재료가 된 고재는 옛날 한옥의 부엌에서 쓰던 솔뚜껑으로 추측된다. 우연히 수집된 이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 울음에 절어서 걸 표면이 시커멓게 타있는 상태였는데, 동그랗고 양증맞은 모양과 살림살이로 쓴 세월이 묻어나는 나무라는 소재가 주는 정감이 왠지 모르게 본 연구자의 정서에 와 닿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처음으로 고재를 수집하여 본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솔뚜껑을 가져와서 닦고 사포질해 다듬을수록 아름다운 나뭇결이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그 안에서 보이는 가로로 긴 웅이가 마치 나뭇가지의 형상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러한 웅이를 살려서 그 위에 새를 앉히고 옆으로 꽃을 그려 꽃나무 가지에 앉은 새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았다. 작품안의 새는 꽃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작은 새는 아름다운 자연과 동화되고 싶은 자연의 일부로서의 자아의 상징이며, 꽃나무는 아름답고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자연을 상징한다. 또한 색감에 있어서도 밝고 환한 노란빛을 띤 색채로써 희망을 표현하고자하는 본 연구자의 심상을 신비함이 느껴지는 새의 이미지로 형상화하였다.



【작품 2】 心園 2 (Secret garden 2) 을 때까지 기다린다

【작품 2】 心園 2 (Secret garden 2) 올 때까지 기다린다.

크 기 : 51×180cm

재 료 : 古材에 수간채색, 혼합기법

제작연도 : 2004

나무에 나무를 담는다는 설정이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을 들어서 소나무판위에 나타낸 소나무 그림이다.

작품속의 소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세월이다. 나무를 보면서 느껴지는 생명력, 지혜, 풍요, 인내, 희생, 조화, 정신적인 에너지, 역사와 같은 내적인 이미지들은 인간의 삶과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되며 그래서 더욱 친숙한 감동을 부여한다.

오랜 세월의 풍설(風雪)을 지내온 나무의 삶을 소나무의 표면을 통하여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세월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무를 조각하여 표현해 보았다. 나무는 안쪽의 심재 부분으로 갈수록 딱딱해 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조각도로 파는 과정이 힘든 부분에서는 전기 조각도를 사용했으며 오른쪽 가지위에 있는 옹이를 활용하여 독수리의 눈으로 살려보았다. 또한 뿔가를 갈구하며 응시(凝視)하는 늙은 독수리의 눈을 통해서 오랜 세월의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기법에 있어서는 나무위에 표현된 나무그림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색을 입히고 그 위에 조각을 하고 사포질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나무의 입체적인 재질감을 살리려 했고, 화면 구성에 있어서도 두개의 나무판을 붙이지 않고 사이에 공간을 두어 조형적인 변화를 주어 보았다. 또한 새나 솔가지의 분명하지 않은 의도된 형상을 통하여 세월이 느껴지는 오래된 느낌을 주어 고재와 나무그림이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작품 3】 心園 3 (Secret garden 3)

【작품 3】 心園 3 (Secret garden 3)

크 기 : 225×110cm

재 료 : 古材에 수간채색, 혼합기법

제작연도 : 2004

오래된 한옥의 대문을 손질하여, 정원안의 연못에 핀 수련(睡蓮)으로 담아보았다.

작은 봉오리에서 하얗게 빛나는 꽃이 되기까지 물 속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하고, 또 활짝 피어난 연꽃은 소망을 갈구하며 인고(忍苦)의 세월을 버텨낸 자신 또는 누군가의 삶을 상징한다. 또한 오랜 시간을 기다려 이제 막 꽃을 피웠는데, 언젠가는 다시 꽃이 지고 말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숙명(宿命)에 대한 애상(哀想)을 의미하기도 한다.

석양에 반짝이는 수면(水面)으로 표현하기 위해 나무를 부분적으로 파서 나무의 색이 드러나 빛을 받는 효과를 주어보았다. 그것에 본 연구자의 애잔한 마음을 담아 자연의 아름다운 서정성으로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대문의 빗장을 이용하여 물 속에 있기 때문에 수면위로 보이는 연꽃의 줄기를 표현하여 어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화면에 재미를 주고자 하였다.

또한 나뭇결의 목리가 잔잔한 바람에 살랑 살랑 일렁이는 연못의 물결이 되어 나타날 수 있게 은은한 색을 사용하여 결이 비취 보이도록 하였으며, 뭔가 더 채워 보고 싶은 마음이 들만큼 여유로운 화면 구성으로 부드러우며 고요한 분위기를 유도하여 애잔한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4】 心園 4 (Secret garden 4) 엄마와 노닐다.

【작품 4】 心園 4 (Secret garden 4) 엄마와 노닐다.

크 기 : 170×79cm

재 료 : 古材에 수간채색, 혼합기법

제작연도 : 2004

이 고재는 어느 시골 학교의 교실 마루 바닥에서 수집된 것이다. 나무판을 관찰하니 다른 나무보다 입체적이며 무늬가 큰 나뭇결이 마치 물결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서 생각을 얻어 오리들이 떠있는 강가의 서정적인 풍경으로 담아 보았다.

이 작품이 상징하는 것은 가족이다. 엄마 오리는 함께 노닐고 있는 아기 오리들 중에서 다른 방향으로 헤엄쳐 가는 아기 오리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엄마라는 존재는 늘 곁에서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며 끝없는 사랑을 베푸는 위대하고 놀라운 힘을 가졌고, 자식들은 이런 엄마에게 의지(依支)하며 안식(安息)을 찾는다.

기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포질을 강하게 하여 깊고 입체감 있게 나뭇결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리가 헤엄치는 방향으로 번져가는 물결로 표현하였고 이러한 물결을 살리기 위해 목리가 잘 비취질 수 있도록 담담하고 은은한 채색을 하였으며, 오리 몸의 깃털을 조각하고 굽어서 입체감을 주었다. 또한 옹이를 이용한 오리의 눈을 표현하여 자연미를 살려보았다.

나무판의 구성에 있어서도 다른 방향으로 가는 오리가 부각(浮刻)될 수 있게 나무판을 똑바로 놓지 않고 헤엄쳐 가는 방향으로 변화를 주어 속도감을 주고자 하였다.



【작품 5】 心園 5 (Secret garden 5) 꽃밭으로 간 물고기.

【작품 5】 心園 5 (Secret garden 5) 꽃밭으로 간 물고기.

크 기 : 151×191cm

재 료 : 古材에 수간채색, 혼합기법

제작연도 : 2004

현실 세계와는 다르게 물고기가 날아올라 육지 한 가운데의 꽃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 물고기는 보이는 그대로를 그려낸 것이 아니라 호기심이 많고 자유를 갈망하는 본 연구자의 감정을 꽃밭에서 움직이는 엉뚱한 물고기의 형상에 이입시킨 것으로서 본인 내면의 심상에 사는 물고기를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술은 대상에 대한 심상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꽃의 잎맥과 줄기, 봉오리, 새의 깃털, 물고기의 지느러미, 비늘을 조각도로 파고 채색을 하고 다시 닦아내는 작업을 반복하여 파여진 나무판 홈 속에 색이 스며들어 은은하게 배어 나오는 효과를 주었고 새와 물고기의 눈, 아가미, 꽃술을 용이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꽃의 외적 이미지가 주는 화려함을 살리면서도 색감은 절제하여 나뭇결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음의 정원 안에 사는 새와 물고기의 신비함을 오묘한 색채로써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화면 구성에 있어서도 세로로 긴 나무판의 간격을 달리하여 조형적인 리듬감을 주어 색다른 구성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작품 6】 心園 6 (Secret garden 6) 대나무 숲에 비가 왔다.

【작품 6】 心園 6 (Secret garden 6) 대나무 숲에 비가 왔다.

크 기 : 351×191cm

재 료 : 古材에 수간채색, 혼합기법

제작연도 : 2004

수십 개의 나무판에 비 오는 대나무 숲의 이미지를 나타내 보았다.

이 제목은 ‘내 마음에 비가 왔다’라는 제목이 더 어울릴 듯 하다. 비가 아주 많이 내렸다가 이제 잠시 그쳐서 어둑어둑해진 어느 오후의 비에 젖은 대나무 숲은 어둡고, 웬지 모를 외롭고 쓸쓸함이 가져다주는 비애감(悲哀感)이 느껴진다. 대나무 숲은 본 연구자에게 있어 사람들과의 관계, 즉 인생이다. 여기서 대나무는 인간을 상징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숲을 이루어 살고는 있지만, 위로만 길고 곧게 자라서 옆을 볼 수 없음에 외로움을 감추고 산다. 그러므로 작품속의 비 오는 대나무 숲의 풍경은 본 연구자의 ‘외롭고 슬픈 어느 날’을 상징한다. 대나무의 형상과 재질을 표현하기 위해 조각도로 나무를 파서 대와 마디를 만들고, 채색하고, 다시 그것을 닦아내고 사포질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입체감을 주고자 하였으며, 본인의 우울하고 갑갑한 감정을 어두운 색채와 대나무 숲 형태의 구성으로써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부분적으로 잎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옹이를 바람에 훑날리는 대나무의 잎사귀로 활용하여 비슷한 모양으로 뻗뻗하게 들어서서 지루하게 느껴 질 수 있는 숲에 리듬감을 부여하고자 했으며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나무를 자세히 묘사하고 어떤 부분은 흔적만 남겨서 변화를 주었다.

이 작품은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숲의 형태가 바뀔 수 있게 가변(可變)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작품 7】 心園 7 (Secret garden 7)

【작품 7】 心園 7 (Secret garden 7)

크 기 : 27×182cm

재 료 : 古材에 수간채색, 혼합기법

제작연도 : 2004

이 작품은 나무판 속의 웅이를 활용하여 소나무 가지위에 앉은 부엉이로 나타내 본 것이다.

나무판 위의 두개의 웅이가 부엉이의 눈을 연상시켰고, 작품 속에서 두개의 웅이는 부엉이의 눈으로 다시 태어났다. 웅이의 자연적인 특징을 본 연구자의 작품 속에서 가장 재미있는 요소로 적용시키고 살려서 마치 우리 조상들의 민화에서 느낄 수 있는 익살과 해학미(諧謔美)로 드러내어 보고자 하였다.

부엉이 뒤로는 형상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솔가지의 흔적만으로도 소나무임을 유추할 수 있도록 조각도로 파고 색을 입히고 다시 닦고 사포로 문지르는 반복된 작업 과정을 통하여 형태를 자연스럽게 지위가면서 간결하고 담백하게 표현하고자 하였고, 계획되어진 여유 있는 빈 공간으로 인해 절제(節制)의 미가 느껴질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자는 나무 안에서 아름다운 자연성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최대한 살리면서, 손길은 절제하는 조심스럽고 겸허(謙虛)한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다.



【작품 8】 心園 8 (Secret garden 8) 물고기 날아오르다.

【작품 8】 心園 8 (Secret garden 8) 물고기 날아오르다.

크 기 : 27×103cm

재 료 : 古材에 수간채색, 혼합기법

제작연도 : 2004

동심원을 그리면서 물결 모양으로 파장(波長)을 일으키는 듯한 형태의 나뭇결을 살려서 물고기가 수면위로 뛰어 오르려고 하는 순간적인 동작을 연상하게 만드는 장면으로 연출해 보았다.

여기서 물고기는 똑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보고 싶은 자유를 갈망하는 본 연구자 내면의 심상을 상징한다.

물고기의 몸통을 옹이로 활용하고, 펄(Pearl)감이 있는 색채로써 반짝이는 비늘을 나타내었고, 조각한 후에 색을 입히고 다시 닦아내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색이 나무에 스며드는 효과를 주었으며 물결의 파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뭇결을 사포로 강하게 문질러서 입체적으로 목리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물고기를 중심으로 물 색깔에 자연스러운 농담을 주어 물고기와 물결을 강조하였다.

왼쪽으로 보이는 옹이 두 개는 마치 파도가 휩쓸고 간 모래사장에서 볼 수 있는 새우와 조개를 닮아 있는데 감상자로 하여금 유추(類推)할 수 있도록 하여 화면의 재미를 더해 주는 요소이다.



【작품 9】 心園 9 (Secret garden 9)

【작품 9】 心園 9 (Secret garden 9)

크 기 : 27×106cm

재 료 : 古材에 수간채색, 혼합기법

제작연도 : 2004

물고기의 눈으로 용이를 활용했고, 아기 물고기와 엄마 물고기가 얼굴을 부비면서 노는 모습은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며, 우리나라 민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유로운 상상을 통한 익살스러운 정감으로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다.

조각도로 나무를 파서 물고기를 표현하였고 비늘과 지느러미를 조각한 후 색을 여러 번 입히고 다시 닦아내어 색이 자연스럽게 나무속에 배어 나오게 하였으며, 화면 구성에 있어서는 엄마 물고기의 배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하여 물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순간적인 장면에 익살스러운 느낌을 주어 보았다. 또한 작품의 오른쪽 하단에 앞부분을 생략(省略)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헤엄쳐 가는 물고기의 꼬리 뒷부분만을 표현하여 단순해 질 수 있는 구도에 변화를 주고 확장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작품 10】 心園 10 (Secret garden 10)

【작품 10】 心園 10 (Secret garden 10)

크 기 : 60×119cm

재 료 : 古材에 수간채색, 혼합기법

제작연도 : 2004

한옥의 일부분에서 수집된 고재의 형태가 집의 모양새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처마 밑 담벼락에 흐드러지게 핀 꽃과 이름모를 풀들이 파릇파릇 솟아나는 어느 햇살 좋은 봄날의 소박한 풍경으로 담아보았다.

만물(萬物)이 소생하는 봄날이 상징하는 것은 희망과 즐거움이다.

꽃과 잎사귀부분의 나무를 파념으로써 빛에 반사된 듯한 느낌을 주어서 입체감을 나타내고자 했고, 햇살이 주는 따뜻함을 밝은 색채로써 표현하였다.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 속으로 내려앉으려 하는 나비와 새는 희망과 즐거움을 발견한 자신이다. 이러한 본 연구자의 내면 심상을 담은 새의 신비함을 오묘한 색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새의 눈 역시 용이를 살리고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IV. 결 론

자연은 예술을 위한 창작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며, 예술가는 이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예술 양식을 달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은 본 연구자에게 소리 없는 가르침을 주는 스승 이였고, 자연미를 추구하며 깊은 내면의 세계를 담아낸 한국의 미는 본 작품 제작의 모태(母胎)가 되었다.

본 작품 연구를 통하여 한국인의 근본을 이루는 전통적인 자연관의 영향을 받아 생성된 한국의 미를 살펴보고, 연구자의 조형 의지에 부합되는 자연미, 재료의 생명미, 간결미를 인지해 가는 과정으로 인해서 작품의 소재가 되는 자연과 본인의 조형 의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추출(抽出)해 낼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한국의 미에서 나타나는 조형 의식 속에는 넉넉한 지혜와 숨결이 담겨져 있으며, 오랜 세월동안 사힘과 숙성의 과정을 거쳐 그 본질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본 작품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아름다운 목리를 살려 만든 전통 목가구나 오래된 사찰의 단청과 벽화에서 볼 수 있는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희미해진 형상과 퇴색된 빛깔들이 나무의 색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느껴지는 정서가 본 연구자에게 무엇보다 편안한 미감으로 다가왔고, 그러한 자연스러움의 미감을 작품으로서 살려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곧 우리 선인들의 숨결이 그대로 묻어나는 고재의 질감을 통하여 작품 소재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고, 그러한 오래된 나무가 주는 편안함과 아름다움의 정서를 본인 내면의 심상을 담은 자연이미지와 융화시켜서 서정적인 공간으로써의 정원을 작품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작품을 제작하면서 조심스럽고 겸허(謙虛)한 마음으로 손길은 절제해 가면서 나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들을 관찰하고, 이들을 자유로운 상상력을 통하여 작품속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었다. 또한 그 속에서 자아를 상징하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국적인 미감이 주는 편안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자연과 조화되고자 하였다.

본 작품 연구에서 중점으로 둔 것은 나무재료와 회화의 접목(接木)을 통하여 나뭇결이 가진 고유한 자연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구도와 배치를 통한 작품속의 구성요소로서 활용하여 연구자 내면의 심상을 담은 서정적(抒情的)인 자연이미지를 더욱 극적으로 나타내는 데에 있었다. 또한 나무판의 조합 형태를 달리 함으로써 작품의 내용을 더욱 부각시키고 이미지의 조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변 설치를 새롭게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작업을 진행해 가는 동안 고재를 수집하고, 다듬고, 작품으로 완성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루기 쉽지 않은 나무의 특성을 파악하고, 작품의 재료로 사용하여 그것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잘 살려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알 수 있었고 그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미비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나무의 자연미를 회화의 조형적인 요소로 활용하고 살려내어 작품화시킨 것에 본 작업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될 나무를 통한 작업전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 자연과 닮아가는 작품을 완성해 나가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1
- 김원룡, <한국미의 연구>, 열화당, 1978
- 백기수, <미학>, 서울대 출판사, 1976
- 십홍 저, <채산명전>, 김인권 역, <조형형태론>, 미진사, 1986
- 오세창, 안세희, 한규성, <목재와 인간생활>, 선진문화사, 2004
- 이은상, <자연론>, 예술원 논문집, 1996
- 임영주, <단청>, 대원사, 1996
- 전영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소나무>, 현암사, 2004
- 조요한, <한국미의 조명>, 열화당, 1999
- 허균, 이갑철, <한국의 정원 선비가 거닐던 세계>, 다른 세상, 2002
- 호암미술관, <조선 목가구 대전>, 2002
- 헤르만 헤세, 두행숙 역, <정원일의 즐거움>, 이레, 2001
- J.L.페리에, <20세기 미술의 모험>, J.P.I, 1993
- K.G Jung, 조승국 역, <인간의 상징>, 범조사, 1981
- 패트리스 부샤르동, 박재영 역, <나무의 치유력>, 이채, 2003
- 로베르 뒤마, 송혁석, <나무의 철학>, 동문선, 2004
- R 아튼하임, 김정오 역, <사고적 사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2

학위논문

김미겸, “자연소재를 통한 조형적 변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성실, “한국의 미의식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을 바탕으로 한 직물디자인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최혜성, “민화에 내재된 자연주의에 대한 고찰과 조형화를 통한 금속 장신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ABSTRACT

A Study of Natural Images on the Grain of wood In the case of my art work, "Secret Garden of My Mind."

Kim, Hye Min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My thesis intends to deal with aesthetics of nature. The aesthetics of nature in my work is deeply associated with Korean traditional aesthetics, which tend to privilege aesthetic values and appreciation harmonious with nature. Korean traditional art has been constructed in close relation to the appreciation of the aesthetic beauty of nature. This naturalism deeply inscribed in Korean traditional art has thus emphasized aesthetics that can convey naturalized beauty and harmony with nature, thereby there is a profound belief that aesthetic value in any work of art can be maximized when it establishes ultimate harmony with nature. This aesthetic of nature has shaped the fundamental idea of my aesthetic sense, and I wanted to create a work that can express and appreciate this vibrant charm, allure of nature actively residing in our everyday life.

It is this aesthetic of nature that inspired my work titled as "Garden of My Mind." In "Garden of my Mind," I wanted to show varied images of nature that I have observed and felt in daily life by visualizing various kinds of natural

symbols and images on the surface of aged wood. Wood has often been known as one of the most difficult art materials to deal with. Despite this, wood is truly an excellent material in that humans can become easily familiar with and, more importantly, it is a material that contains the sheer ambiance of nature. In this sense, wood as an art material is quite adequate to my fundamental idea of aesthetics. With this material, I intended to create varied images of nature articulated with modern aesthetics emphasizing the quality of wood as an art material. Viewed from this perspective, my work can be seen not as a work of art, which tries to take only the simplified images and shapes of nature, and to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its images, but as the one, which tries to get closer to nature by actively utilizing varied symbols and shapes of nature.

In my work, "Garden of My Mind," I used old lumbers from the Korean traditional house as a major material. These lumbers contain traces of time and life. After the time-consuming, hand-crafting labors of cleaning, trimming, and carving, I painted on the surface, grains of wood. By doing this, I wanted to create images retaining fading, worn-out, and natural shapes and colors as well as a quality of depth that only familiar, aged materials can offer. It is such naturalized charm and familiarity of Korean traditional aesthetics that my work intends to discover.

My thesis tries to examine the meanings of aesthetics in nature and to pursue the aesthetic value of liveliness and shapes that nature as an art object can offer. In doing this, I intend to not only have an opportunity of rethinking about the perspectives on painting, but also seek the new ways of creating images, which I will adopt in my future work.